

제 목	국 문	임상지표를 활용한 의료의 질 평가	
	영 문	Outcome Evaluation with the use of clinical indicator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창엽, 이상일 ¹ , 안형식 ² , 이영성 ³ , 김윤 ³ , 김용익, 신영수 서울의대, 울산의대 ¹ , 충북의대 ² , 한국의료관리연구원 ³	
	영 문	Chang-Yup Kim, Sang-Il Lee, Hyeong Sik Ahn, Young-Sung Lee, Yoon Kim, Yong-Ik Kim, Youngsoo Shin <i>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i>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김창엽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95 년 12 월		
<p>1. 연구 목적</p> <p>최근 의료의 여러 측면 중에서 결과(outcome) 측면에서의 활용한 질 평가와 질 향상 사업이 전체 질 향상 사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임상지표는 계량적인 방법으로 환자진료의 결과나 과정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측정도구로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최근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p> <p>우리 나라에서도 의료의 질 향상 사업의 기초로서 질 평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외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우리 나라 사정에 맞는 몇개의 임상지표를 검토 개발하고 이를 실제 질 평가에 적용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오스트레일리아의 ACHS(The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 미국의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캐나다의 CCHSA(Canadian Council on Health Services Accreditation) 등에서 개발한 임상지표를 참고로 하여 8종의 임상지표를 검토, 개발하였다.</p> <p>전국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병원을 모집하고, 연구진이 개발한 임상지표의 정의, 조사방법, 자료원, 결과의 형태 등을 배포하였다. 참가를 희망한 병원은 전국적으로 40개 병원이었으며, 이 병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설명회, 간담회, 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였다.</p>			

각 병원은 8개의 임상지표 중 여건에 따라 조사에 사용하는 임상지표의 종류를 선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조사과정에서 자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199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후향적 조사인 경우 1995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개발된 임상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계획에 없던 재입원율(unplanned readmission)
- ② 계획에 없던 재수술률(unplanned rerutn to operating room)
- ③ 교차시험/수혈비(C/T ratio)
- ④ 응급실 재원시간(emergency department length of stay)
- ⑤ 균혈증(hospital acquired bacteremia)
- ⑥ 수술후 창상감염(postoperative wound infection)
- ⑦ 응급실 CT촬영 소요시간(timeliness of CT/MRI testing)
- ⑧ 신생아 합병증 비율(neonatal complications)

4. 고찰

임상지표를 활용한 의료의 질 평가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질 향상에 대한 의지, 조사자의 실무능력, 정보체계의 표준화 정도 등 많은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결과 측면의 질 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적극적인 연구와 조사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